

회장인사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과연 정치인은 몇번째 순위를 차지할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몇등이나 할까요? 그런 실없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국민들 눈에 결코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실제로 정치인들이 벌리는 각가지 형태의 행동을 보면 과연 이분들을 존경해도 괜찮은 분들인가 하는 의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듭니다. 아마 어쩌면 정치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법안이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됐을 때 어떤 의원은 자식보기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집에 들어가느냐고 탄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런 갈등을 겪었겠죠. 그 당시 여당의원들은 드디어 해냈다는 승리감에 기고만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때에 야당의원들이 느꼈을 무력감!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야당의원들을 많이 뽑아 주었는데 제2야당의 총재와 제3당의 총재라는 사람이 골프 몇번 치고 대통령을 만나고 우물딱 주물딱 하더니 때억 합당을 해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만 빼놓고는 뭐든지 할수 있는 코끼리 같은 거대한 여당을 만들어 버렸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수가있겠습니까? 이래서는 국회라는것은 있으나 마나다 라고 판단을 한 국민들도 무척 많았다구 생각을 하는데 그 때 국민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어렵게 단 국회의원 금뺨지를 스스로 떼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노무현씨를 비롯한 4명의 젊은 야당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폭제로 하여 결국은 야당의원이 총사퇴를 하고 또한 야권통합도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닥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씨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씨를 꼭 도와야 된다는 절실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힘을 모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꼭 돈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가 가시적으로 표출됨으로서 노무현이란 정치인의 발언의 무게가 실리고 또 그의 발언은 책임이 따르며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후원회를 조직했고 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원회원이 되는것은 노무현씨와 계약을 맺는 것이며 그 계약은 국민이 우선하는 정치, 이 땅의 진정한 민주의 꽃을 피우는 정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계약입니다. 노무현씨는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또 지금까지 노무현씨가 보여온 모든것이 거짓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노무현을 지켜 봅시다.

1990년9월

노무현후원회장

이 기 명 올림

32074